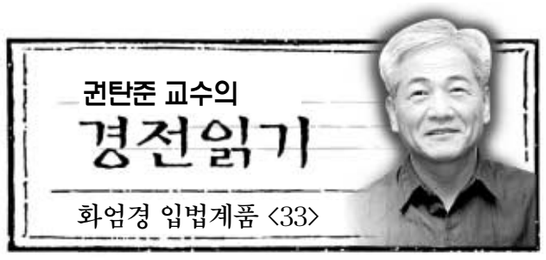

명지거사의 법문

선지식 모습이 거사인 것은 세속에서 중생 위하기 때문

선재동자는 구족우바이로부터 남쪽의 대흥성(大興城)에 있는 명지(明智)거사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대흥성에 이르러 보니 명지거사는 성 안의 네거리에 있는 칠보대 위의 무수한 보배로 장엄된 자리에 앉아서 일만이나 되는 훌륭한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거룩하신 분이여. 저는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려고,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 모든 중생들을 온갖 지혜의 성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으며, 모든 중생의 의지할 곳이 되올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지거사는 선재동자가 보리심을 낸 것을 칭찬하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보리심을 낸다면 능히 보살의 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만이나 되는 동료들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그들로 하여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게 하였더니 여래의 가문에 나서 청정한 법을 증장하고 한량없는 바라밀다에 편안히 있으며, 부처의 열 가지 힘을 배워 세간의 종자를 여의었으며, 여래의 종성에 머물러 생사의 윤회를 버리고 바른 법륜을 굴리어 세 나쁜 길을 없애며, 바른 법에 머물러 보살들과 같이 모든 중생을 구원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마음대로 복덕이 나오는 창고의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무릇 필요한 것은 다 소원대로 되나니, 이른바 의복, 영락, 코끼리, 말, 수레, 꽃, 향, 당기, 일산, 음식, 탕약, 방, 집, 평상, 등불, 하인, 소, 양과 시중꾼들의 모든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이 찾는 대로 만족케 되며, 내지 진실한 법문까지 연설하느니라.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라. 이러한 광경을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명지거사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한량없는 중생이 갖가지 방향, 세계, 국토, 도시로부터 와서 명지거사에게 제각기 자기의 욕망대로 요청하였다. 그 때 명지거사는 여러 중생이 모인 것을 알고 잠깐 생각하면서 허공을 우러러 보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허공에서 내려와서 모든 대중의 뜻을 만족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갖가지 법을 연설하였는데, 아름다운 음식을 얻어 만족한 이에게는 갖가지 복덕을 모으는 행, 빈궁을 여의는 행, 모든 법을 아는 행, 법으로 기쁘고 선정으로 즐거운 음식을 성취하는 행, 모든 거룩한 모습을 닦아 구족하는 행, 다함이 없는 큰 위덕(威德)의 힘을 성취하여 마(魔)와 원수를 항복받는 행을 연설하였다.

그리고 좋은 맛을 얻은 이에게는 법을 말하여 생사(生死)에 애착을 버리고 부처의 법맛(法味)에 들어가게 하며, 수레를 얻어 만족한 이에게는 갖가지 법문을 말하여 대승의 수레를 타게 하며, 의복을 얻어 만족한 이에게는 법을 말하여 청정한 부끄러움의 옷과 내지 여래의 청정한 모습을 얻게 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만족케 한 뒤에 알맞게 법을 연설하니 대중들이 법문을 듣고 본래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명지거사는 선재동자에게 보살의 부사의한 해탈의 경계를 보이고 나서,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뜻대로 복덕을 내는 광해탈문[隨意出生福德藏解脫門]을 알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명지거사의 법문은 정진바라밀로서 여러 가지 복덕을 마음대로 지어 낼 수 있는 법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명지거사가 머무르고 있는 성의 명칭이 대흥(大興)인 것은 정진바라밀로 여러 가지 이익을 크게 일으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거사의 이름이 명지(明智)인 것은 정진바라밀의 수행이 밝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선지식의 모습이 거사로 나타나 있는 것은 세속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깨달음의 도에 뜻을 두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선재동자가 명지거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일체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내었음을 고백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묻자 명지거사가 그가 보리심을 낸 것을 칭찬하며 보리심을 낸 사람은 능히 보살행을 구할 수 있다고 격려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지거사가 선재동자에게 일만이나 되는 보리심을 낸 대중을 나타내 보인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한량없는 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증(例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량없는 복덕을 마음대로 내어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일체중생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베푼 후에 정법을 설해서 모든 공덕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승의 보살행은 이와 같이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무한히 응해 주면서 바른 법을 설해서 그들을 교화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선의 세계 ⑥

직지인심-5

모든 중생 이미 부처, '성불하겠다' 잘못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어째서 '동쪽으로 간다면서 서쪽으로 가는 짓'이라는 걸까? 그것이 어찌하여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어긋나는 짓일까? 경전 공부에 대해 선종이 그런 극단적인 비판을 퍼부은 데에는 새로운 종파로서 권세 있는 기존 종단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시 수증(修證)의 문제, 즉 닦고 깨치는 문제에 대한 선종의 교의(敎義)가 전반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교란 과연 무엇이냐, 그 요체가 무엇이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선종의 입장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든, 교리와 의례, 공동체 등 갖가지 요소가 담긴 종합적인 종교로서의 불교든, 불교의 요체는 역시 깨달아 성불하는 데 있다는 것이 선종이 들고 나온 가장 근본적인 신조이다. 그거야 누구나 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새삼스럽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종 사람들이 보기에 기존의 불교는 그 매우 당연한 명제를 잊고 있는 듯했다. 부처님의 시대로부터 긴 세월이 흐르면서 잡다한 신행의 곁길들이 이리저리 뻗어나갔고, 오랫동안 멀리 오다가 보니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본령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곁길들을 본령으로 착각하고 집착함으로써 불교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종에서는 단순히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 불교의 요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깨달아 성불하는 것,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나 자신이 깨달아 성불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불교 신행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법문 열심히 공부하고, 염불과 기도 열심히 하고, 법회 열심히 참석하고, 계율 잘 지키면서 차츰차츰 닦아가다 보면 긴 세월 뒤에(몇 년, 몇 십 년 뒤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내생을 거듭한 뒤에) 마침내 성불하리라는 것이 불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은 성불을 내팽개치고 경전공부, 염불, 기도, 계율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 선종 사람들이 목청을 돋구어 외친 비판이었다.

지금 나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중생일 뿐이고, 차츰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성불하겠거니 하는 매우 겸손하고 상식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 어째서 선종은 그토록 매몰찬 비난을 퍼붓는가? 선종에서는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님이라는 명제를 대전제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님인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지금 중생이고, 노력해서 앞으로 성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는 얘기이다. 불교의 깨달음이란 내가 이미 부처님이고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님임을 깨닫는 것이지, 조금씩 조금씩 부처님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점차 부처님이 되어간다는 생각에 대해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셈이라고 오금을 박았던 것이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님이라는 말을 스님들 법문에서 많이 들어 익숙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것은 참으로 황당한 얘기이다. 중생과 부처는 워낙 반대말인데, 그것을 동의어라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종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힘주어 하는 걸까? 그것은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9>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戰車)

이 세상에 수많은 형태의 생물체가 셀 수도 없이 존재하면서 서로 상의상존하여 커다란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이 지닌 생산성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무수히 파괴되어 가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의 논란도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저녁뉴스에서 친근해졌고, 가깝게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사찰 환경 파괴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몸소 현장에서 육탄으로 저지하는 분들의 모습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산촌 곳곳에 모텔이 들어설 것이고 개발이란 이름으로 인간 위주의 자연 파괴는 계속될 것이다.

'소욕지족'이 생태계 파괴 해결책
마음공부로 욕망의 시대 극복해야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환경과학 등의 또 다른 과학 기술의 발달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 격인 학자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안전설비가 비대해져서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아니라 워낙 비대해진 원전 안전장치의 안전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이야기였다.

분명 앞으로도 이러한 식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기에 불자로서의 환경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하여 비록 더딘 듯이 보일지는 몰라도 가장 근본적인 해답으로서 부처님 법의 마음공부를 들고 싶다. 사람이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쫓아가고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문다는 선가의 비유가 있다. 산촌에 모텔을 짓는 업자들은 그곳에서의 수요가 없으면 와서 모텔을 지으라 해도 절대 짓지 않는다. 결국 분위기 있고 은밀한 곳에서 즐기고 싶다는 인간들의 주체하기 힘든 욕망과 이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전차(戰車)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환경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 해도 이는 결국 돌을 쫓아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환경 문제, 아니 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이고 그렇기에 이는 마음의 문제로서 풀어가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

부처님 경에도 '만족할 줄을 안다'라는 뜻의 지족(知足)이나 소욕지족(小欲知足)이라는 표현이 있고 옛 선사들도 오유지족(吾唯知足)이란 말씀을 하셨다. 밖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여 채우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일상적인 범사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욕망의 시대를 비추는 촛불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재가자들의 소규모 마음공부 모임들이야말로 나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을 위한 진정한 생태운동이요 환경모임의 모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 한방, 심리학 및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현재 불교 포교사 활동 중인 분이나 스님 또는 앞으로 포교사 활동 예정인 중생구재의 대원력을 세울분들에 한함!

수행과제
1. 경락학, 기치료 원리 및 실기, 심리학, 대체의학
불가의 비전술 오행환술 신체교정운동법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심경질환 중풍 예방법 전수
각종 난치 질환 신병 귀신병(빙의)
2. 오행기전검법
(상대의 목소리만으로도 현재 아픈 곳 진단가능)
원거리氣방사법(멀리있는 상대에게 기운 운공가능법)

수행과정
천기운행법으로 상대를 정확히 알수있는 지상 최고의 육통법(숙명통) 일반역학과는 차원이 완전히 틀림
▶ 과 정 : 3개월 (1개월 속성코스도 있음)
▶ 강의료 : 3개월 300만원

절에서 일하실 20세 ~ 25세 女구함 (0명)
보 수 : 월 60 ~ 80만원 사이
▶ 자 격 : 신심이 돈독한 불교신자에 한하고, 기수련자는 특히 환영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창원포교당 향 선 사 지도법사스님 도 안
TEL : 055)276-9855 / 직통 : 016-726-0830

대구 대승불교대학 · 정토사
범음 · 범패 수강생모집

대승 불교사상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열린 기도전법도량
대승불교대학에서는 불교의식 전반에 걸친 강좌를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일반 재가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강의내용
▶ 기초과정(3개월) : 도량석, 아침종성, 예불, 상강례, 사시불공, 신중기도, 지장불공
▶ 전문과정(1년) : 관욕, 대령, 전시식, 관음시식, 시다림 의식, 구병시식, 예수재 의식
▶ 기타강좌 : 천수바라, 나비춤, 북다루기, 경쇠, 징, 목탁 치는 법 등

강의장소
▶ 대승불교대학 3층 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월촌지하철역 사거리)

개강일시
▶ 2003년 8월 말(수시모집)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4시간) 전문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3시간) 기초염불반

대승불교대학 중무소 전 화 053)622-0333
휴대폰 011-699-9120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 2003학년도 가을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

모집과정

과 정 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양불교	불교란 무엇인가?	Ⅰ	배상환	1학기	주 간
		Ⅱ	최종석	1학기	주 간
	참선수행	Ⅰ(참선법의 이해와 실제)	인환스님	1학기	주 간
		Ⅱ(참선공안의 참구와 실참)	인환스님	1학기	주 간
불교연구	경전연구	화엄경	인환스님	2학기	주 간
	불교한문	육조단경	심재동	2학기	주 간
	초급한문	명심보감	심재동	2학기	주 간
	한문해석법	大學, 中庸	심재동	2학기	주 간
	공자와 현대사회	논어	이종찬	2학기	주 간
	한시감상(창작)		이종찬	2학기	주 간
불교전문	불교전문교육	초기불교의 이해	배상환	5학기	주 간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최종석		
		불교와 경전의 이해	신성현		
		중국불교의 이해	김주경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명대	2학기	주 간
문화 · 예술	불교정통꽃꽂이		정진희	2학기	주 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불교전문교육과정은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에 한함)

원서교부
※ 기간 : 2003년 8월 4일(월) ~ 8월 29일(금)
※ 접수 : 사회교육원 교학과(학술관 1층)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1매
※ 불교전문교육과정 : 주민등록등본과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각 1부 추가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 02) 2260-3728~9 / FAX : 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edu/~soedu